※ 진흥회 소식 ※

日, 전력기자재 시장 진출 세미나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9月 25日 KOTRA 12층 대회의실에서 중전기기 업체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일본의 전력기자재 시장에 대한 국내 중전기기 업체의 진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 전력기자재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동경전력의 유키오 기무라자재부부장이 특별 연사로 초청돼 일본전력업계의 해외조달규모 및 향후 시장 전망 등 전력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국산 중전기기 구매현황과 제품 품질에 대한 평가, 구매희망 품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앞으로 국내 중전기기 업체의 대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국내 중전기기 업체의 대일 진출전략 및 마케팅 활동시 유의사항과 동경전력의 국별조달현황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이와함께 이번 동경전력구매단은 보성중전기, 대한전선, 한보공업을 방문 국내 중전기기 업체의 생산현장 견학과 상담도 벌이게 된다.

한편, 일본은 전기사업법 개정과 전력요금을 2001년까지 20% 인하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본 전력회사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철탑,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 도입선을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동경전력은 지난해 250억엔 상당의 기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미국으로부터 190억엔, 우리나라에서 13억엔 상당의 전력기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회에서는 이번 세미나 내용을 책자로 별도 발간, 회원사에 배포하여 대일 전력기자재 시장 진출의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